



# “내가 가진 모든것 가난한 이웃과 함께”

본지 신행수기 대상 받았던 차정연 보살의 나누는 삶

## 10년째 매월 첫 주 무료급식·목욕·수지침 봉사 때론 딸처럼 어머니처럼 어르신들 보살펴

“어머!”  
경상도 사투리로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다. 6월 11일 부산시 영봉동 동사무소 2층,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급식소에서 차정연(52) 약수자비원 원장은 수도 없이 ‘어머!’를 불렀다. “어머! 밥 더 집주세요.” “어머!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한끼 밥을 해결하려 온 어르신들이지만 차 원장은 일일이 손을 맞잡고 반기며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있었다. 그것도 잠시, 차 원장이 어르신들 “아가야”로 부르며 “우리 아가야, 오늘 아침에 목욕했나?”하고 묻자 어르신들은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듯 “응”하고 대답하며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때론 딸처럼 때론 어머니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보살피는 차정연의 일상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무료급식이 있는 날이면 이른 아침 차 원장과 해항봉사단 단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목욕봉사도 함께 한다. 봉사단원 일부

는 차 원장이 일궈놓은 약수와 도량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일부는 목욕봉사에 나선다. 게다가 수지침과 뜸 무료 봉사도 있어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라곤 없는 나이의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차정연보살이 11일 부산영봉동 동사무소 2층에서 수지침(사진위)과 무료급식(사진 아래) 봉사를 하고있다.

**■나눔의 손잡기 힘글**  
서울 서대문 길상사 - 5만 2,520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 44만 8,330원  
의정부 광동여고 - 30만원  
(북한용천 지원 기탁)

**■알립니다**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 저금통 회수(6월1일~16일)**  
6월1일부터 16일까지  
36개의 나눔저금통이 회수됐습니다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서울 양평구 신월동 용기사(주지 수성 스님)  
저금통 - 200개  
스티커 - 200장  
경남 사천시 축동면 탑리 58-4번지 범륜사(주지 도각 스님)  
저금통 - 10개  
스티커 - 200장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차 원장이 이처럼 매월 첫째 주 무료급식, 목욕 봉사, 수지침 봉사 등을 해 온 것도 벌써 10년째. 오랜 세월 한결같이 봉사하는 차 원장과 봉사단을 지켜본 어르신들의 칭찬이 대단했다. “최고지, ‘아가야’ ‘아가야’ 하며 우리를 목욕시켜주지, 짐 봐주지 너무 고마워.” 손은님(86)남(76) 할머니는 “좋아! 좋아!”를 연발했다. 배종명 동장도 “어르신 섬기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동사무소 수지침 강의를 받으면 전액 또 봉사에 쓰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말했다. 20명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임공수지회, 자비신학회, 삼선회, 약수회 등의 조직을 갖추며 2백 여명의 봉사단

으로 자리잡았다. 본인의 속옷이 구멍이 나고, 몸살로 얇아 늘고, 고물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가난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지 못하는 차 원장. 차 원장의 봉사이유는 간단 명료했다. “부처님 공부해보니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린 시절,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밥을 해주고 병자를 보살피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차 원장이 나눔의 삶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셈이다. 물 한 모금조차 스스로 마실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며 불교공부와 인연을 맺은 후 1112월 동안 이어진 기

## 북한동포들에게 옷 전해 주세요

1천여벌 보시한 남대문 상가 김영란 보살

“북한동포나 해외 동포, 불교국가 불자들에게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6월 16일, 여성의류인 슈웨터와 그라운드 티셔츠 1천여장을 보낸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전달한 서울 남대문시장 대도아케이트

707호 한양나트 사장 김영란 보살(사진). 김 보살이 보시한 의류는 시가로 2000~3000만원을 상회한다.

김 보살은 “최근 운영하는 의류공장의 물품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일부제품의 특별한 인관매를 계획하다 본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보고 의류를 보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편과 함께 출가한 시누이의 수행적인 작은 포교당에 나간다는 김 보살은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가르침을 알게 됐지만 실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어려운 이웃과 해외동포들을 돕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현대불교 신문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본사는 김 보살이 보시한 여성의류 1천여장을 7월경 (사)지구총공생회(상임대표 월주 스님, 前조계종 총무원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구총공생회 이남재 사무국장은 “현재 아시아 지역 불교국가 불자들과 북한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8월경 북한 용천이나 1937년 스탈린의 민족차별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러시아의 고려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 분은 연락주시요.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

- 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현찰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찰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시요.



## 찬불동요 CD·TAPE 40세트 어린이 교육단체에 전달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찬불가 동요집 20세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 전달됐다.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 청계사 주지·사진 오른쪽)는 6월 12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연수회에서 3차 CD 보내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풍경소리 대표 성행스님은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30세트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정여스님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은 본지와 벌이고 있는 찬불동요 CD 보내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폭넓은 찬불동요의 보급을 요청했다. 이어 풍경소리는 6월 19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연수회를 열고 있는 불교레크리에이션포럼회에도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10세트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